

4일 Market Index	
코스피 2481.67 (+27.74)	코스닥 719.92 (+16.12)
금리 (미국 9년) 2.584 (+0.012)	환율 (원-달러) 1460.00 (-7.20)

가상자산 털씩
환율·물가 경총
美 관세전쟁 후폭풍
02



샘 올트먼 오픈AI CEO(왼쪽)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일 오전 10시23분께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4층에서 미팅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 AI 거물 집결 삼성·SK와 연쇄회동

샘 올트먼·손정의 訪韓

오픈AI, SK와 AI 기술 협력 논의 카카오와 첫 전략적 제휴 발표도 이재용-올트먼-손정의 3자 회동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참여 기대

오픈AI의 샘 올트먼(CEO)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적인 AI 기술 및 투자 거물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으면서, 그간 정체된 것으로 지적되던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픈AI의 첫 공식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났다. 그의 방한 일정은 직전까지 극비리에 부쳐졌다.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날 오전 올트먼 CEO는 첫 번째 일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AI 기술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동석했다.

이후 그는 오픈AI 개발자회의 '빌더랩(Builder Lab)'과 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다.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올트먼 CEO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양사의 전략적 제휴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 이는

오픈AI가 국내에서 맺은 첫 전략적 제휴로, 두 기업은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과 공동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챗GPT API를 활용한 카카오톡, '카나나' 등 카카오 서비스와의 연동 방안이 논의 중이다. 오후에 열린 올트먼 CEO와 이재용 회장, 손정의 회장의 3자 회동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회장의 첫 공식 행보이기도 했다. 손정의 회장은 '한·미·일 AI 동맹'을 위한 논의를 목적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최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삼성그룹과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란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합작벤처 스타게이트를 통해 4년간 최대 5000억달러(약 730조원)를 투자하는 AI 관련 사업이다.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며, 반도체 설계자 산 기업인 Arm(암)과 엔비디아도 참여해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센터에 자체 설계 반도체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3자 회동에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사로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 CEO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진 데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적 AI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친인척 동원 부당대출... 우리금융 등 적발

금감원, 지주·은행 주요검사 국민·농협, 직원-브로커와 공모 일부 대출에선 금품·향응 정황도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고 금액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의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관련기사 3면>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적으로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대출 규모는 우

리은행이 2334억원(101건)으로 가장 컸으며, KB국민은행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 649억원(90건)인 순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영업점 부당대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은행 직원이 브로커 등과 공모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을 받은 정황도 밝혀졌다.

금감원 조사로 적발된 것 외에 금융기관 신고로 파악된 금융사고도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1~9월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는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90건, 1210억원) 대비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사 결과는 금융권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지주사 중

심의 경영이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는 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도 진행 중이다. 평가 결과가 우리금융지주가 주주인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우리금융의 M&A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종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제재 절차와 '투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의 임기가 6월 초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임기 중 제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서울 첫 한파 경보 서울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발효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강변에 얼음이 얼어 있다. /뉴시스

여야정 4자 참여 국정협의회 내주 초 개최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반도체법·추경 편성 합의 기대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다음주 초에 개최한다고 4일 예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자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

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오섭 국회의원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회는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한 이후 한달만에 열렸다. 그동안 여야가 현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다음 주 월·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권영세 비대위원

장, 이재명 대표까지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서 다음 주 중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국정협의회 논의 대상에 올라가느냐는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특정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 투표... 7공화국 준비" /사진 뉴시스
▲최재성 "민주당內, 국힘보다 더 입틀막... 이재명, 총구 밖 향하라고만"

▲국정원 "파병 북한군, 1월 중순부터 전투 동향 없어"
▲"요양시설 임차, 비영리법인만 허용해야... 지역 제한 검토도 필요"

▲한병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에 "정의 승리한다는 것 증명해"
▲"尹 복귀 안해도 보수정권 재창출... 이재명, 정역1년 예상" 전원책 변호사

3일간 가상자산 720조 증발... 상승재료 실종, 변동성 클 것

코인 가격 롤러코스터

비트코인 역대급 폭락장 기록 후 7.6% 상승한 10만300달러 거래 캐나다·멕시코 관세 한달간 유예 코인시장 전일 하락분 회복세 보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언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공포가 해소 된다 해도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재료가 부족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7.6% 상승한 10만 3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미국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우려로 9만100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역대급 폭락장을 기록했다.

지난 3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관세 전쟁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밑으로 급락한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빙셀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11% 하락했고, 리플(-21%), 솔라나(-10%), BNB(-11%), 도지코인(-25%), 에이다(-26%) 등 주요 알트코인이 폭락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3일 3조

1000억달러(약 4548조)를 기록하면서 지난 1일 3조6200억달러(약 5306조) 대비 5조2000억달러가 사라졌다. 3일간 약 720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단기시총이 600조원 넘게 증발한 적은 지난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6일 이후 6개월 만이다.

가상자산 가격 폭락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 발표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추가로 10%포인트(p)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상대국은 물론 미국도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한 달간 유예키로 하고 중국과 캐나다 등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가상자산시장도 전일 하락분을 회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시장의 상승재료가 실종된 상황에서 단기적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부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22일 무역법 세이프가드(section 201) 발동이 무역 분쟁으로 시작됐고 2019년 12월 미·중 1차 무역협약까지 무역분쟁에 따른 주가 조정이 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 정치 스타일의 경우 '관세' 카드로 글로벌 국가들과 협상에 임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관세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가상자산 실무 그룹이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180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와 방침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가격 반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환율 1470원 근접, 국제유가 상승까지... 체감물가 또 오르나

탄핵정국 이어 관세정책 '2연타' 물가안정 목표치 2.0% 웃돌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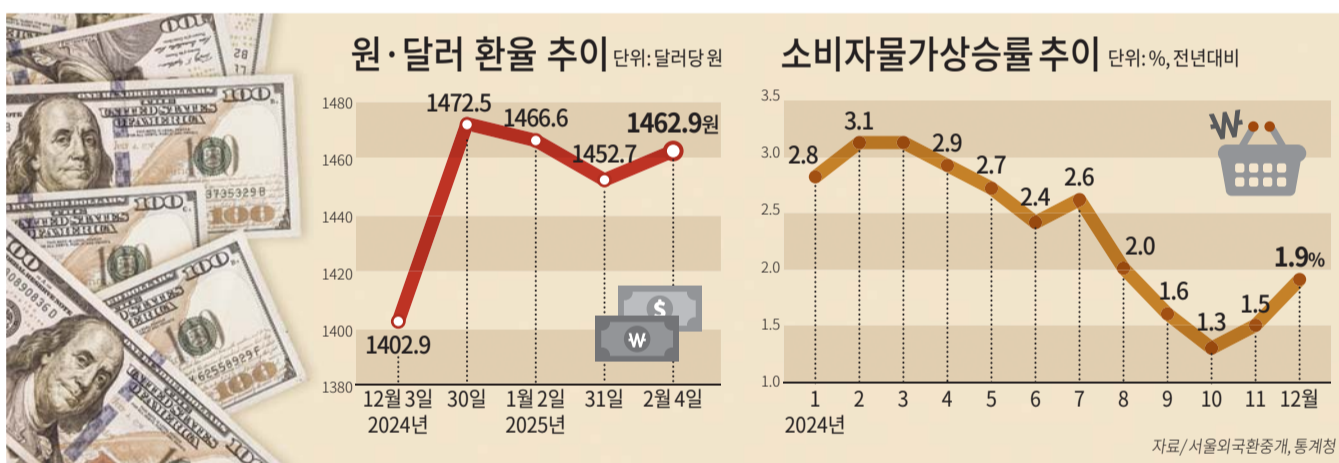
캐나다·멕시코 관세 한달 연기에 유가상승 제한, 추후 상승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1470원대에 근접한 환율에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체감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종가기준)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10.2원 오른 1462.90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간을 두고 관세정책이 본격화되면 관세 비용이 수입품 가격에 더해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상승에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에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생산자·소비자 물가 상승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1.9%)보다 0.15%포인트(p) 오른 2.05%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 ▲2월 3.1% ▲3월 3.1%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 ▲8월 2%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안정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에 1400원에서 1470원대로 올랐던 환율이 체 떨어지기도 전에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1470원대를 이어가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목표치(2.0%)를 웃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가가 상승하는 점도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0.29달러 상승한 배럴당 75.96달러에 마감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0.63달러 상승한 배럴당 73.16달러에 마감했다.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부과 조치가 연기되며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한 달 뒤 관세 부과가 실시될 경우 또다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12월 중 환율 상승 압력이 누적된 가운데, 같은 기간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연초물가가 오르는 계절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한은의) 물가 목표(2.0%) 수준 근처까지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달까지는 정부가 실민생대책으로 농축산물 등에 할인을 지원했지만, 기간(1월27일까지)이 끝나 또다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은 한 포기 4835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2.8%, 41.5% 올랐다. 무는 한 개 3065원으로 1년 전보다 99.0% 올랐고 평년보다 67.1% 상승했다.

외식 물가도 상승세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외식 메뉴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 지역 짜장면 가격은 7423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

최태원, 美 공식방문... 트럼프 만날까

20대 그룹 사절단 이끌고 오는 19~20일 워싱턴 행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번 사절단은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오는 19~20일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20대 그룹 참가자는 현재 모집 중으로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수나 사장급 인사들이 주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공언한 가운데 이번 사절단은 갈라디너,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



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19일에는 1897년 개관한 미국의회도서관 '토머스 제퍼슨 빌딩'에서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디너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정부 고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올트먼 "韓, AI 관련산업 역량 뛰어났다"

>> 1면 '글로벌 AI 거물 집결...'서 계속

올트먼 CEO는 이날 오전 기자들의 한국 시장 확대 방침 관련 질문에 "물론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에너지 등 AI 관련 산업 역량이 뛰어나고, AI를 적극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답했다.

다만 오픈AI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트먼 CEO는 카카오키즈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도 신중

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오픈AI 한국지사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을 발표할 정도로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한국은 훌륭한 시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관해서도 "고려 중이지만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파트너십 관련 대화 역시 모두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서현 기자

‘스타게이트’ 추진 논의… 딥시크 맞서는 AI 생태계 만들까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삼성-오픈AI-소프트뱅크 3자 회동

AI 동맹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
이재용 회장, 무죄 이후 첫 행보
반도체 분야 등 협력 확대 전망

한국을 방문 중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카카오 등 IT 기업 최고경영진을 연이어 만나며 릴레이 회동을 가졌다. 오픈AI가 국내 기업과 동맹을 적극 추진하는 데는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에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딥시크는 저비용으로도 고성능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AI 생태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3자 회동’을 시작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추진 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입국해 오후 2시 40분 삼성 서초사옥에 도착했다. 앞서 올트먼 CEO는 손 회장에 앞서 서초사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등 반도체 담당 경영진도 함께했다.

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오픈AI와 3자 회의’에 대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업데이트 현황과 삼성 그룹과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스타게이트는 미국에서 5000억달러(약 731조원)를 투입해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앞서 올트먼 CEO는 손 회장과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합작 벤처 ‘스타게이트’ 설립 등에서 협력한 것으로 알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졌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자 회동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대외 행보인 만큼 대규모 투자는 물론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 AI, 소프트뱅크 산하 ARM의 AI 반도체 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앞서 올트먼 CEO는 이날 오전 최태

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나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도 참석했다.

먼저 올트먼 CEO 등 오픈AI 경영진은 오전 9시30분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최 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SK 그룹 경영진 중에서는 과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시작으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올트먼 CEO와 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분야와 AI

비서 서비스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사의 만남은 지난해 1월과 같은 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6월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회동을 가졌다.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오늘 미팅 어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더풀’이라고 답하고 퇴장했으며 최 회장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회동 이후 올트먼 CEO

는 카카오 미디어데이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오픈AI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AI 사업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올트먼 CEO의 미디어 데이 참석 및 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는 행사 개최 전까지 극비리에 부쳐졌다. 오픈AI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와 오픈AI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공동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키노트 발표에서 “오랜 기간 국민 다수의 일상을 함께 하며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선보이는 것이 지금 시대 카카오의 역할일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AI와 협력해 혁신적 고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제휴 배경을 설명했다.

올트먼 오픈AI CEO는 카카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카이를 좋아하고 AI 비전을 공유한다”며 “특히 AI와 메시지의 접목에 관심이 많다. 이 부분에서 탐구할 것이 많고 (메시지의 활용은) 업무적인 부분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올트먼 CEO의 이번 광폭 행보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맹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딥시크는 최적화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고성능 모델을 구현하는 데 압도적인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딥시크 개방형 모델이 시장 경쟁을 넓히며 한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는 삼성, SK,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딥시크를 따돌리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내부통제 먹통... 부당대출 46% 부실화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검사 우리은행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과 관련해 추가로 380억 원을 적발했다. 또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후에도 불법대출이 취급되면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 우리은행의 경우 2334억원(101건)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은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 이외에 추가로 380억원이 적발돼 총 73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451억원(61.8%)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시기인 지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손 전 회장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한 이유다. 금감원은 전체 부당대출의 46.3%(338억원)는 이미 부실화한 것으로 확인했고, 나머지 대출분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룡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주식매매계약 당일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열어 리스크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를 통해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만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동양·ABL생명 등 보험사 인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박종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최종 검사는 1분기 이후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에서도 의견을 달아서 올리겠지만 금융위에서 결국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금감원 발표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며 “당국과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복현 “은행권, 뼈를 깎는 자성 필요”

(금감원장)

» 1면 ‘친인척 동원 부당대출’서 계속

다만 이 원장은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금융위로 보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제재 절차와 분리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우리·KB·NH금융지주 등 지주사 검사와 관련해 그룹 내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까지 모두 반영하면 일부 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 T1)은 10~20bps(1bp=0.01%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 무불이행시 신탁사가 통상 6개월 내 건

물을 준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부실이 커진 해외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에 우회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조직문화가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으로 바뀔 수 있는지, 부실한 내부통제도 책무구조도라는 규율만으로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생활금융 리더’ 도약... ‘생손보 통합 1위’ 정조준

삼성생명

① 홍원학 사장

삼성생명은 2025년 생활금융 전반을 리드하는 회사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헬스케어, 신탁, 시니어비즈니스 등 신사업에 도전해 고객의 생애 전반에서 나아가 사후까지도 연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석이다.

◆ 생손보 건강 1위 목표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올해 ‘생·손보 건강 1위’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보험업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한 2조421억원을 기록하면서 ‘2조 클럽’과 동시에 보험업계 1위를 다시금 증명했다.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생보업계에서 역대급 실적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삼성생명의 호실적 요인으로는 수익성 중심의 건강보험 시장 공략이 꼽힌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다모은 건강보험’ 시리즈 등을 출시하면서 건강상품 라인업을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생명은 건강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7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상품 경쟁력 확보에도 성공했다.

삼성생명의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가운데 건강 CSM 비중은 1분기 53%, 2분기 55%, 3분기 62%로 지속 증가해 오고 있다. 3분기 누적 신계약 CSM도 2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9월 말 기준 CSM 잔액은 12조9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다양한 상품·담보 공급으로 종합건강 시장을 선도했다”며 “시니어·간편 시장 적극 대응을 통해 CSM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삼성생명은 생손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들과 차별화되고 트렌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금융 전반을 리드하는 회사로 도약해 나가자”며 “각자의 부족함을 상호간 소통과 연계로 보완할 때 우리의 목표 ‘생손보 건강 1위’에 보다 빠르게 다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사업 드라이브, 실질 성장 증명

삼성생명은 본격적인 신사업 추진에 나선다. 홍원학 사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지난해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삼성생명 ‘라이프놀로지 랩(Lifenergy Lab)’ 프로젝트 이미지.



삼성생명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광고 캠페인 론칭 현장 이미지.

으로 올해는 신사업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이뤘겠다는 계획이다.

홍원학 사장은 “지난해 기존의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강조했다”며 “올해는 작년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멀리 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2025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시니어리빙TF가 정식 조직인 시니어Biz팀으로 격상됐다. 시니어리빙TF는 작년부턴 시니어사업 기획실 산하에서 시니어 대상 사업의 사업성을 연구해 왔다. 올해 정식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시니어 사업 본격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신탁 시장에서도 신규 수익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서 보험업계의 신규 경쟁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25년 컨설턴트 교육육성체계를 개편하고 종합 컨설팅 역량을 강화했다. 개편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탁 및 퇴직연금과 같은 비보험상품 과정을 보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25년 컨설턴트 교육육성체계를 개편했다”며 “이번 개편은 삼성생명이 ‘생손보 통합 1위’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건강보험 시장 공략 성공, ‘2조 클럽’ 가입 배타적사용권 7건 확보, 건강보험 CSM 62% 시니어·간편 시장 대응, 종합건강시장 선도

신사업 확대, 조직개편으로 전략 강화 시니어리빙TF, 시니어Biz팀으로 격상 컨설턴트 교육 개편, 비보험상품 확대



삼성생명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 2025년 컨설턴트 교육육성체계 개편 이미지.

/삼성생명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국민의힘 “반도체 R&D 특례·지방 미분양 DSR 완화 촉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도체 특별법 당정협의의

주52시간제로 반도체 경쟁력 약화
각국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도입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의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 지원
세제지원 확대, 물가안정 등 도모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의를 추진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제안안 편성 요구,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열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의에서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의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

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열린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의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 경제부처 민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비수도권에서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고 금융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당정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제부처 민생대책으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입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에 11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곽종근 “국회 본관서 빼낼 요원 없었다”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尹,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지시 당시 시점서 요원들 본관에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술에 여당은 곽 전 사령관이 야당에 회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반박한 야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라는 국회 측 장승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을 한 셈이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국회 본관 안에 다른 타깃(대상)은 없었다는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 답했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피고인이 현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의원’과 ‘요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요원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있었던 (통화에서) 707 특임단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고 한 게 맞다”며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35분 사이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맞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태 직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김병주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며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뒤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그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이 즉각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짜가지(없다)”고 말하자 부 의원은 “짜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말하는데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저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판단해서 말한 것”이라며 “제 의지대로 말한 것”이라며 여당의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 소재 접점 운영자 무속인 ‘비단아씨’ 이선진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차례 자신의 점집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기 직전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장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 전 장관)과 내가 뭔가를 했을 경우, 그게 잘 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최 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임시국회서 ‘에너지 3법’ 등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2월 중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의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민생·경제 살리기 신속논의 기대”

>> 1면 ‘여야정 4자 참여...’서 계속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진은 특정 안건이 올라간다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3일) 2월 임시 국회 개회식에서 여야에 조기 추경 합의, 민생 입법 속도, 성장 동력 확보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두고는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도 매우 중요

하다”며 “지난해 AI 기반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듯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여야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의를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여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난 2일, 1급 이상 간부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상생금융 동참 손보사 '속얇이' 적자 우려에도 車 보험료 인하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결정
인하 폭 줄여 0.8~1%가량 내릴듯

삼성화재, 車보험 손익 66% 급감
대형 4개사, 누적 손해율 83.3%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손해율 상승 등으로 차보험손익이 적자를 향해 가고 있어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올해 차보험료를 0.8~1%가량 인하한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대형 3개 손보사가 앞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발표했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는 각각 1%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DB손해보험은 0.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다른 손보사들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폭은 0.5~1%

가량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2022년 1.2~1.4% ▲2023년 2~2.5% ▲2024년 2.5~3% 인하됐다. 올해는 인하폭이 줄었지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리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상생금융 차원의 성격에 제일 적합하다"며 "다만 차보험손익이 거의 남지 않아 작년에 비해 인하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자동차보험 업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거나 심각한 경우 적자전환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지난 3분기 차보험손익은 140억원으로 전년 420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DB손해보험의 차보험손익은 160억원으로 전년 830억원 대비 81% 급감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3분기 차보험손익으로 2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차보험 손해율도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4개 손보사의 지난 한 해 누적손해율은 평균 83.3%로 집계됐다. 전년 79.8% 대비 3.5%p 상승한 수치다. 통상 업계에서 보는 적정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업황 악화에 따라 당초 업계에서는 차보험료 인하가 아닌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다만 올해 역시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손보사들은 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차보험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게 1% 보험료 인하는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차보험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하에 따라 올해 다시 차보험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래미안 원페를라' 특공 경쟁률 83대 1

올해 첫 로또 청약... 1.8만명 몰려

올해 첫 '로또청약'으로 꼽히는 '래미안 원페를라'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 8000명 가까이 몰렸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페를라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83대 1로 집계됐다. 214세대 모집에 1만 7832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8083명, 6611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8-14일대에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최고 22층, 총 16개 동으로 1097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482세대다. 전용면적 별로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265세대로 가장 많고 ▲59㎡ 157세대 ▲106㎡ 56세대 ▲120㎡ 4세대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은 7호선 내방역과 4·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초대로와 서리폴터널 등을 통해 강남에 접근하기 좋다.

방배초와 방일초, 서래초, 방배중, 이수중, 서문여중·고, 경문고 등이 모두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신세계 백화점과 서울성모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갖춰져 있으며, 서리폴공원과 몽마르뜨공원, 반포천 등도 가깝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래미안 원페를라 현장. /안상미 기자

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9650만원, 84㎡가 24억5070만원이다. 106㎡와 120㎡는 각각 29억9780만원, 31억8400만원이다.

인근에서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전용 54㎡와 84㎡가 지난 달 각각 20억2000만원, 29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하고 있는 '디에이치 방배'의 입주권은 전용 59㎡가 18억8155만원, 101㎡가 33억9386만원에 거래됐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투기과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이다. 주변 구축의 시세가 낮아 거주 의무기간은 없지만 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청약 재당첨제한은 10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더샵마스터뷰' 예상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두산건설이 제안한 '더제니스' 투지도.

/두산건설

포스코 vs 두산... '성남 은행주공' 수주전

포스코이앤씨 '더샵마스터뷰' 조합 사업비 2400억 무이자 조달
두산건설 '더제니스' 회사 이윤을 조합 이익으로 환원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오는 16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맞붙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수주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사가 강점을 강조하며 물밑 경쟁이 뜨겁다. 은행주공은 지하 6층~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 포스코이앤씨, 특화설계 적용

포스코이앤씨는 3.3㎡(평)당 공사비로 698만원을 제안했다. 기존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제시한 715만원보다 낮다.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원으로 설정하고 그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해 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과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도 조합에 귀속된다. 조합에 주어진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비용까지 지원한다. 공사비 검증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815장의 입찰내역서와 419장의 특화 설계도면을 제출했다.

단지명은 '더샵마스터뷰'다. 조망형 이중창 등에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단지 내 단차를 활용한 완만한 경사로 '그랜드슬롭(GRAND SLOPE)'과 같은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 솔루션과 경관의 가치를 더하는 '그랜드슬롭'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합원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의 재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두산건설, 공사비↓·공사기간↓

두산건설은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더제니스(The Zenith)'를 제안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공사비로는 평당 635만원을 제시했다. 회사의 이윤을 조합의 이익으로 환원해 조합의 분담금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실착공 이후 공사비를 고정해 공사비 상승에 대한 조합의 걱정을 덜 예정이다. 조합의 빠른 입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해 공사 기간은 51개월로 제시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조합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The Zenith"를 바탕으로 고품격 주거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이 향후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될 경우 프리미엄 전략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향후 수도권 재건축 시장에서도 '브랜드 고급화'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두산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결정된다면 실속형 공사비 전략이 조합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점이 확인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연임 유력

남은 임기 2주... 하마평도 없어
연임 땀 2000년대 이후 최초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임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차기 회장 도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오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통상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장 임기 종료 1~2개월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꾸린다. 그러나 아직 차기 회장 과 관련해서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중앙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도 없다. 탄핵정국 여파에 관료 출신조차 선불리 나서기 어려워진 탓이다. 그간 중앙회장은 현 회장인 오회장과 제17대 이수우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관료출신이었다.

민간 출신 또한 도전장을 내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고금리 여파에 저축은행업황이 크게 나빠지면서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및 M&A(인수합병) 활성화 등 숙원과제가 산적하다. 오회장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이다.

이처럼 소강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오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앙회 정관상 중앙회장 연임에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다. 아울러 오회장의 경우 일선 저축은행의 단단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오회장의 역할이 요구된

다는 목소리다. 오회장은 앞서 아주저축은행과 아주캐피탈, 하나저축은행 등을 거치며 실적을 견인한 바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장은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이 유리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보수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업황에선 현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중앙회는 아직 선관위와 회추위 구성과 관련해서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 일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별도의 논의도 없었다. 사실상 오회장의 연임이 확실해졌다. 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출이 미뤄지는 경우 현 회장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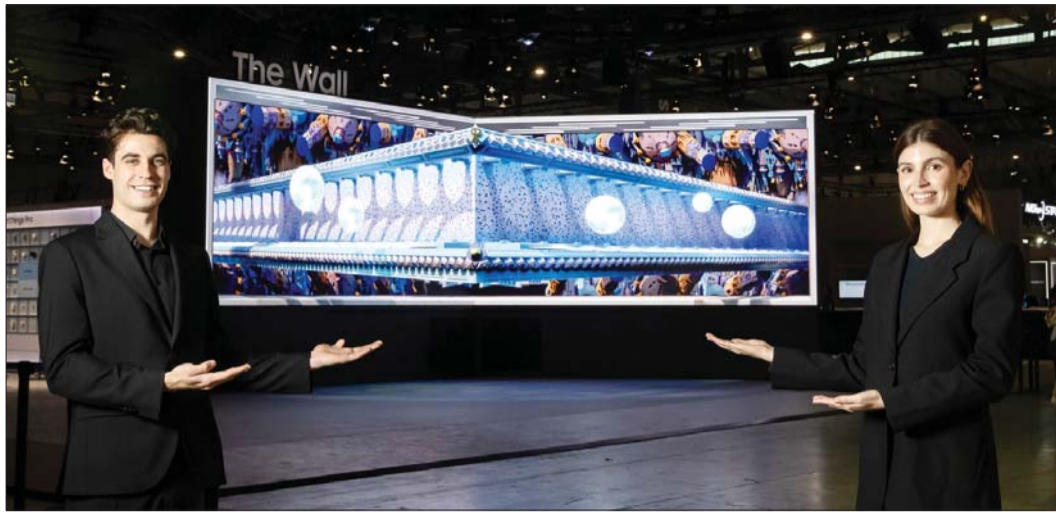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임기연장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현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뿐더러 저축은행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어서다. 오회장은 임기 동안 이전 회장 임금의 절반만 받았다. 그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활용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대표에게 업무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2000년대 이후 첫 연임 회장이 된다. 마지막 중앙회장 연임 사례는 1980년대 제 5·6대 명동근 저축은행중앙회장이 마지막이었다. 아직 오회장은 연임과 관련해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정관과 원칙에 따라 선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

ISE 2025



삼성전자 모델이 2월 4일부터 2월 7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더 월'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대형·초저전력 신제품 스마트싱스 기반 AI 방점

SAMSUNG

462형 '더 월' 미디어 파사드 설치
'컬러 이페이퍼' 공개... 전력 대폭 절감

삼성전자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5'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업계를 선도할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SE 2025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시장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삼성 컬러 이페이퍼' 4종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B2B(기업 간 거래) 통합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 ▲AI 전자칠판 신제품과 초대형 사이니지 등을 전시한다. 전시관 입구에는 삼성 마이크로 LED 기술을 집약한 462형 '더 월(The Wall)'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됐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콘텐츠 광고를 위해 소비전력을 대폭 절감한 게 특징이다. 디지털 종이에 잉크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콘텐츠 유지 상태에서는 소비전력이 0.00와트

(W)다. 화면 변경 시에도 기존 디지털 사이니지 대비 현저히 낮은 전력이 소모돼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이 적용돼 이동이 편리하고 다양한 상업용 공간에 손쉽게 설치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사이니지 사용성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싱스 프로의 AI 기능과 자동 제어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B2B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 프로(SmartThings Pro)'는 '인터랙티브 뷰(Interactive View)'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등록한 평면도를 AI로 분석하고 입체감 있는 3D 도면으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공간 시각에 용이한 3D 도면 위에 스마트싱스 프로와 연결된 기기를 맵핑해 쉽고 편리하게 기기를 관리할 수 있다.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는 암호 모듈 크립토큰어(CryptoCore)가 탑재되면서 사물인터넷(IoT) 연결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기기 간 연결시 안전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크립토큰어는 암호 모듈 국제 인증인 FIPS 140-3을 획득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해 ISE에서 화상회의 솔루션에 최적화된 105형 5K 스마트 사이니지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115형 4K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ED-AI '화려한 만남'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선보

LG전자

매장, 사무실 등 현장 배경 제품 전시
'LG 매그니트'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

LG전자가 4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 참가해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올해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다'를 주제로 전시관을 조성했다. 매장, 사무실, 학교, 교통수단, 호텔 등 주요 현장을 배경으로 한 여러 제품을 전시했다.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초대형 '키네틱(Kinetic·움직이는) LED'는 AI 기술을 적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LED 사이니지 88장을 이어 붙인 가로 7.18m, 세로 4.09m 크기다. LED와 거울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정육면체 모듈로, 각 모듈이 좌우로 360도 회전하면서 다채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또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올리면 생성형 AI가 팝아트로 전환해 화면에 띄워주는 관람객 직접 참여형 광고 솔루션으로 구성했다.

LG전자는 이 밖에도 ▲AI 기반 리테일 매장 트래픽 및 행동 데이터 분석 기업 트리플렛 ▲학교 출입 관리 및 긴급 상황 대응 솔루션 전문 기업 코코모 24/7 ▲비주얼 프로덕션 전문 장비 및 솔루션 기업 모시스, 메가픽셀, 브롬톤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 로지텍, 시스코, 크레스트론 ▲사이니지 전용 콘텐츠 관리 솔루션 기업 브라이트사인 등 국내외 파트너사와 연계한 다양한 기술도 시연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층 진화한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나볼 수 있다. B2B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용·설치 편의와 콘텐츠 호환성, 에너지 효율 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제품 뒤쪽에서만 가능하던 LED 모듈 간 단차 조절을 앞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LED 컨트롤러 기능을 강화했다. 화면을 꺾을 때 대기 전력도 최대 98% 대폭 낮췄다.



LG전자가 현지시간 4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특히 태양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화면이 노랗게 변색되는 황변현상을 최소화하는 '안티 디스컬러레이션(Anti-Discoloration)' 기술을 적용한 고휘도 사이니지를 선보인다. 지난해 글로벌 시험·검증기관 'UL 솔루션즈(UL Solutions)'로부터 업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변색 저항 특성에 대한 검증을 획득한 이후 첫 대중 공개다. 또 드라이브스루 매장, 실외 수영장, 버스 정류장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을 연출해 디스플레이 황변현상 방지에 최적화된 사이니지 라인업을 전시한다.

소매 매장을 연출한 리테일존에는 화재 안전 규격을 취득해 고객의 안전까지 생각한 사이니지,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2세대 키오스크 등 소매 매장을 위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종합 솔루션을 전시한다.

/구남영 기자

현대차그룹, 美·英 등 자동차 시상식 석권

'왓 카 어워즈' 최고의 기술 등 7관왕
'카 앤 드라이버' 23개 차종 최고모델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과 미국의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라인업의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2025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1978년 시작해 올해로 48회를 맞은 왓 카 어워즈는 유럽에서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올해의 차 등을 포함해 차급별 최고 모델을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5N이 '최고의 핫해치 전기차'에 선정된 데 이어, 캐스퍼 일렉트릭이 '최고의 도심형 소형 전기차'에, 신타페가 '최고의 7인승 차량'에, 아이오닉 5N의 E-시프트(Shift) 기술이 '최고의 기술'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아이오닉 5N.

기아도 EV3가 '최고의 소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에 등극했고, 스포티지가 '최고의 패밀리 SUV'에, EV4가 '가장 기대되는 차'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가 발표한 '2025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현대차 9개, 기아 7개, 제네시스 7개 등 총 23개 차종이 최고 모델에 올랐다. 카 앤 드라이버는

1955년 창간 이래 미국과 글로벌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자동차 전문지다.

이 외에도 현대차·기아의 7개 차종은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선정하는 '2025 최고의 고객가치상'도 수상했다. 2025 최고의 고객가치상에는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이 '최고의 콤팩트 SUV',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 특히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4년 연속 최고의 하이브리드 승용차 부문을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뛰어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그룹, 친환경 조선 기술개발 박차

베어커휴즈와 가스터빈 개발 계약

한화그룹이 글로벌 가스터빈 제조사 베어커휴즈와 손잡고 조선업계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국제해사기구(IMO)·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글로벌 조선업계의 탈탄소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조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IMO는 2050년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100% 감축한다는 내용의 '넷제로' 계획을 발표했으며 EU도 2030년까지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28%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은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어커휴즈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무탄소 선박 추진 체계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3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베어커휴즈

연례회의'에서 베어커휴즈와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동개발할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100% 암모니아 연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를 자유롭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암모니아 연료만으로 과일 및 오일(가스터빈의 안정적 연소를 위해 사용하는 화석연료) 없이 엔진 작화가 가능해 완전한 무탄소를 실현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번 공동 개발 계약을 통해 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완전 무탄소 선박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탈탄소연료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시로 복원된 비틀즈... 창작의 확장인가, 도 넘은 기술인가

비틀즈 '나우 앤 덴', 그래미 수상 존 레논 데모 테이프, AI로 정밀 복원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의 본격화 고인 음원 활용, 윤리·법적 과제 부각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원된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Now and Then)'이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AI 기술이 음악 제작 방식과 창작 개념을 변화시키면서 AI가 만든 음악을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인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비틀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래에서 열린 제67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록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며 8번째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AI 기반 음원이 그래미 후보에 오른 최초의 사례로, 그린데이, 펄 잼, 블랙 키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폴 매카트니 "합성 아닌 기존 녹음 정리한 것" 강조

그래미 측은 후보 발표 당시 "나우 앤 덴"은 45년 만에 완성된 곡"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존 레논



시로 환생한 존 레논이 비틀즈 멤버들과 '나우 앤 덴'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

/더 비틀즈 공식 유튜브 계정의 '나우앤덴' 뮤직비디오 화면 갈무리

은 1970년대 후반 이 곡의 데모를 녹음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를 위해 음악을 완성해 세상에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나우 앤 덴은 1970년대 말 존 레논이 뉴욕 자택에서 녹음한 미완성 데모 테이프를 AI 기술로 복원해 완성한 곡이다. AI가 레논의 보컬을 분리하고 잡음을 제거해 선명한 음질로 복원한 후,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가 연주를 추가해 지난해 11월 공식 발매되었다.

폴 매카트니는 "이 곡은 인위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녹음을 정리한 것"이라며 AI 기술이 창작의 본질을 대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인위적이거나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 모두가 진짜이고 우리 모두가 그 위에서 연주한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진행해 온 기존 녹음을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틀즈는 1990년대에도 존 레논의 데모를 복원하려 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레논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분리할 수 없어 무산됐다.

이후 비틀즈 다큐멘터리 '비틀즈: 깃백' 제작자들이 머신 러닝(ML) 기반의 새로운 오디오 분리 기술을 적용하면서 제대로 녹음되지 않은 데모에서도 레논의 목소리를 추출할 수 있게 됐다.

◆AI 음악 창작,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확산하면서 창작과 복원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AI가 만든 음악을 기존 저작권 체계로 보호할 수 있는지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AI가 생성한 음악은 법적으로 명확한 보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

태다. AI가 학습한 원본 음원과 생성된 결과물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두고 각국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AI 창작물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AI 음악의 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많지 않은 상황이다.

AI 기술이 음악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윤리적·법적 논의 없이 구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I가 고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족의 동의 없이 AI로 복원된 음원을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AI 음원 제작 시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명확한 출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통신 3사, 갤럭시 S25 사전 개통... 최다 예약 모델 '울트라'

SKT, 사전 예약 60% 울트라 선택 KT,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 도입 LGU+, 스마트기기 요금제 할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4일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의 사전 개통을 시작했다. 통신 3사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 일반 개통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해 고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신 3사에 따르면 갤럭시 S25 중 가장 많이 예약된 모델은 '갤럭시 S25 울트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전체 사전 예약 구매자 중 60%가 울트라 모델을 선택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사전 예약 구매자 중 절반 이상이 울트라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색상은 갤럭시 S25와 S25+는 아이스블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그레이 모델 순으로 인기 있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개통을 위해 '삼성 강남'을 방문한 고객들이 2층 픽업존 앞에서 제품 수령을 기다리는 모습. /삼성전자

이에 통신 3사는 갤럭시 S25 사전 구매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먼저 SKT는 S25 시리즈 사전 예약 시 월트디즈니 월드 투어 기회, 스타벅스 5만원 상품권, 디즈니플러스·T우주·T데이·T로밍·에이닷·챗GPT 더블 혜택 등을 제공한다. SKT는 또 제휴

카드 활용 시 더블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 T라이트 카드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을 할부로 결제하면 최대 84만원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2.0에 가입하고 통신료를 자동 이체하면 최대 72만원 혜택이 제공돼 두 카드를 함께 쓰면 총 15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SKT는 월 5200원을 내면 최대 5회까지 파손을 보상해주는 갤럭시 S25 시리즈 전용 보험상품인 'T케어플러스 파손 S25'를 3개월간 운영한다. 2년 뒤 S25 시리즈를 반납하면 신모델로 기기 변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초이스 혜택인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선택하면 '안심체인지 뉴 갤럭시 AI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클럽은 2년 후 새 휴대 전화를 구매할 때 기존 기기를 반납하면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다. 또 갤럭시 액세서리 디바이스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라면 삼성 초이스 요금제 가입 시 버즈3와 버즈3 프로를 혜택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 밖에도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365폰케어 파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세컨드 디바이스(갤럭시 버즈·워치 등)의 파손·피상·해킹 보장은 물론, 폰 교체·파손 수리 대행까지 지원한다. 월정액 5900원이며, 스페셜 이상 요금제 이용 시 램버시 차감 할인으로 월 3800원에 이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최신 갤럭시 단말기를 구매하고 5G 시그니처 또는 5G 프리미엄 플러스(월 10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태블릿 또는 스마트기기 월정액 상품을 할인 제공한다. '갤럭시워치7 팩' 또는 '갤럭시버즈3프로 팩'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액세서리에 대한 3개월 할부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브로드밴드가 실시간 방송에 인공지능(AI) 기반 UHD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한다. 위 사진은 AI 기반 UHD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한 전·후 비교 사진.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스포츠, 더 선명하게"

실시간 방송에 AI UHD 기술 도입

SK브로드밴드가 실시간 방송에 인공지능(AI) 기반 UHD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IP)TV 업계에서 실시간 방송 화질을 AI 기술로 개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부터 스포츠 채널 SPOTV를 기존 풀HD에서 UHD로 제공한다. UHD는 풀HD 대비 4배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초고화질 디지털 포맷이다.

그동안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는 방송사가 직접 UHD로 송출한 사례가 있었지만, 풀HD로 송출되는 실시간 방송에 AI 업스케일링을 적용해 UHD 화질로 제공하는 것은 IPTV 업계 최초다.

이번 초고화질 개선에는 SK텔레콤의 AI 딥러닝 기반 영상 품질 개선 솔루션인 '슈퍼노바'가 적용됐다. 슈퍼노바는 영상·이미지·음원의 품질을 향상하는 AI 기술로, 고성능 AI 그래픽 처리장치(GPU) 내장 서버를 활용해 색감과 선명도를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혜민 기자

쿠팡 등 플랫폼, 실시간 고객 상담 의무화

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실시간 고객 상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형식적인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상담 창구만 운영해 실질적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응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구글·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메타 플랫폼스·쿠팡 등 6개사(社)는 온라인과 ARS 상담 창구를 모두 운영해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 내 실시간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를 처리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사유와 일정을 안내해야 한다.

/이혜민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관세전쟁 속 트럼프 수혜주는?... “조선·건설·엔터 등 주목”

타격 받은 LG전자·기아 숭고르기
삼성전자, N 회장 판결에 하단 방어
트럼프 ‘조선업종 필요’ 언급에
동맹국으로 韓 예상... 관련주 반등
서비스업인 엔터주 등도 영향 미미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조선업 투자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며 시장 분석 중인 투자자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잠시 유예했지만 LG전자, 기아 등 제조업 관련주의 반등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내수 관련주와 ‘트럼프 수혜주’ 등이 주목되는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LG전자와 기아가 각각 0.26%, 0.62%씩 오르며 숭고르기에 들어갔다. 관세 리스크가 부각됐던 3일에는 LG전자가 전 거래일보다 7.13%, 기아는 5.78%씩 급락했다.

LG전자, 삼성전자는 멕시코에 사전과 TV 공장을 두고 있으며, 기아는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아는 한국산 10% 관세, 멕시코산 25%

관세 부과 시 영업이익의 악화 폭이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5년 추정치의 약 16%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날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하단을 방어했다. 4일에는 3%대 강세를 보였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셈이지만, 취소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일부 기업들의 보편관세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 이러한 업종에 속하는 건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기기 등이며, 관세 문제가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 전까지 부진을 이어갈 수 있다”며 “관세는 결국 수출과 관련된 이슈이므

로 한국 내수 관련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어려운 투자 환경을 피해갈 수 있는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세전쟁 우려를 빚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조선, 건설, 엔터, 게임 업종 등이 언급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조선 업종은 트럼프가 애초에 필요로 한다고 내놓고 이야기를 한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없는 섹터라고 생각한다”며 “관세는 주로 제조업에 적용되는 만큼 서비스업인 엔터 산업도 예외될 수 있고,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며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언급된 동맹국으로 한국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 주요 조선 관련 업종을 담고 있는 ▲SOL 조선TOP3플러스 ▲KODE X K-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 ▲TIGER 조선TOP10 ▲HANARO Fn조선해

운 등은 모두 1%대 이하의 하락세를 보였다. 3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52%, 코스닥은 3.36% 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선방한 수준이다. 관세정책이 유예되며 시장이 반등한 4일에는 일제히 3~4%대 상승했다.

김 연구원도 “조선, 원전, 전력 등은 미국이 필요한 제품이지만 온전하게 자국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관세를 부과해도 얻을 게 없다. 즉, 관세 리스크가 높지 않기에 주가가 흔들리면 저가매수로 대응하며 버티면 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종 또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흔들림 없는 곳으로 수주, 매출, 이익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고, 해외 성과에서 미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낮다”며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 내 정유 시설에서 원유 공급망을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오일·가스(Oil&Gas) 프로젝트가 다시 활기를 띌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딥시크 쇼크’에도 SOXL·엔비디아 줍줍

해외주식 Click
낙폭 과도 분석... 단기 반등 기대
매수세에도 관련 주식·ETF 부진
관세 이슈에 변동성 커질 가능성



/유도이미지

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맞먹는 모델을 선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관련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여전히 매수하고 있다. 주가 하락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노리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1월 28일~2월 3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를 4억4299만 달러어치 순매수, 가장 많이 담았다. 이어 엔비디아 주식을 4억1244만 달러어치 사들였으며, 엔비디아의 하루 주가 변동을 2배로 추종하는 그레닛세어즈 2배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NVDL)

도 3억5557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이밖에도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엔비디아와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는 일드맥스 엔비디아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도 2964만 달러어치를 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이 SOXL과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은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단기 반등을 기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 주가는 딥시크의 AI 모델 발표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하루 만에 17% 급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9% 넘게 하락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에도 관련 주식과 ETF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좀처럼 하

락을 회복하지 못한 채 12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딥시크발 충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 우려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향후 관세 이슈가 지속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딥시크의 등장이 엔비디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AI 시장의 본질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딥시크 발표 이후 AI 모델 훈련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반영되면서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면서도 “그러나 더 나은 모델을 개발하려면 여전히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2025년 실적 전망을 고려하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증여, 전년비 7배 ↑”

맞춤형 세무 컨설팅·이벤트 진행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세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WM 영업점과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3일부터 진행 중인 ‘해외주식 VOLUME-UP 이벤트’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 금액과 순매수 금액에 따라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며, 고객의 금융 절세 캠페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난해 주식발행액 24.6兆... 전년비 10.9% ↓

발행회사 1274곳... 5.7% 줄어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발행 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 상장주식과 발행금액은 줄어들었으나 코스닥에선 큰 폭으로 늘었다.

4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자동발행금액은 24조64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9% 줄었다. 발행회

사도 1274개사로 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발행수량은 184억5700만주로 전년보다 3.2% 늘어났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주식이 101억8000만여주로 작년 전체 발행 수량의 55.2%에 달했다. 이어비상장법인 주식 약 44억6000만주(24.2%), 유가증권 상장주식 약 36억8000만주(19.9%), 코넥스 상장주식 약 1억2000만주(0.7%) 등 순으로 많았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으나, 유가증권 상장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은 각각 전년 대비 20.7%, 25.7% 감소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약 11조1491억원, 코스닥 상장법인이 약 9조7575억원을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유가증권시장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18.0% 감소했고,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발행사유 별로는 ‘유상증자’가 65억 9000만주,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비상장사로 확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온라인 처리
삼성증권은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인 온라인 주총장이 상장기업에서 비상장기업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온라인 주총장’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2020년 오픈 후 5년 만에 920개 상장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업계 최초로 ‘온라인주총장’ 서비스를 비상장사로 확대해,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증권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가능했던 주주총

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주총장’ 신청 기업이 주총을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기업별 전담 직원을 배치해 세부적인 실행과 운영에 대해 맞춤형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주주 입장에서든 간편한 주주인증 절차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주총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주총장 계약기업들이 삼성증권과 진행한 증자, 불특정 등의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라며 “온라인 주총장 서비스가 삼성증권의 법인 영업 길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공유형주택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서울시, 불합리·불필요 규제 철폐

자연재해로 행정자산 손해 발생시 복구비용 등 일방적 부담 제한키로 온누리상품권 신규사용처도 확대

서울시가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 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한다. 또 시민이 행정 재산 사용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 행태도 뜯어고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개선한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전입 신고 서류 일원화에 착수한다. 그간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의 경우 전입 신고 때 동주

민센터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 재산 사용 허가 부당 특약 방지'에 나선다. 현재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행정 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을 개정키로 했다.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골목형 상점가 100곳을 신규로 지정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를 늘릴 계획이다.

관광 경기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 숙박 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한다. 명동, 북창동 일대 등에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난달 25일 새날지역아동센터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설 이용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415곳에 예산 677억 투입

서울시, 운영 활성화 계획 시행 노후센터 환경개선비 전액 지원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케어하는 시설이다. 현재 시는 관내 총 415개 센터를 통해 아동 1만1304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투입 예산은 전년 대비 61억원 늘어난 총 677억원이다.

우선 시는 노후 센터의 환경 개선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급식비와 간식비도 제공해 먹거리 품질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 서울권 학습실 설치,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 취약 아동 건강 성장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초·중·고 검정고시 원서 17~21일 접수

서울시교육청, 현장·온라인 병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정고시 원서접수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17일부터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https://kged.go.kr)'에 접속해 1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시교육청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만큼 접수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



지난해 8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참석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하루 먼저 종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나, 출입국 제한조치 등으로 현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원본 서류를 반드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

기 발송해야 한다. 서류는 21일 발송분까지 인정된다.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하는 장애인 지원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준비돼 있다.

현장 원서접수장 내 '장애인 지원자 접수처'를 운영해 지원자가 1대 1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 안내 ▲대독, 대필, 확대 문제지 신청을 위한 '장애인 편의 제공신청서' 작성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5년 제1회 검정고시는 오는 4월 5일 시행된다. 합격 여부는 5월 8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일정,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

원거리 대학진학 주거비 연 240만원 지원

교육부, 내달 18일까지 장학금 접수

정부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해 주거지 마련에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 4만여 명에게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자가 기존 소득 8분위에서 9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4년제 대학 162곳과 전문대학 93곳 등 총 255개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된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인데 대학 소재지는 전주 시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전주시와 남원시와 인접한 시가 아니어서 교통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교육청, 12일 고3 대입 진학설명회

7일 '진학지도 자료집' 공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상수)은 2026학년도 대입을 대비해 12일 '고교 3학년대상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진학지도 자료집'도 공개한다. 수험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진학을 설계하도록 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6 대입은 의대 증원에 따른 수험생 수의 증가와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여러 변화 속에서 진행되면서, 예비 고3 수험생과 학부모는 보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입 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진학 설명회 및 진학지도 자료집 제공한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췌진학 나침판 고3 학년 초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설명회는 12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교육 췌TV'(www.youtube.com/live/umEo9NNyyHw)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 대입 수시 모집 이해와 대비' '2026 대입 정시모집 이해와 대비' 등을 포함한 총 2개 강의가 열린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86억 지급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6000가구를 포함 총 38만6000가구이다.

시는 가구당 10만원을 난방비로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둘째 주부터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광명 일직동에 문화센터·공공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534억 투입

광명시가 문화·예술·교육시설이 부족한 일직동에 문화예술복합센터와 공공도서관을 한 곳에 건립해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및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복합센터와 도서관은 광명 문화공원 부지인 일직동 528-1에 건립된다. 센터와 도서관은 같은 부지내 건립되는 만큼 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물 내·외부 공간, 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통합 설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문화예술복합센터를 사업비 33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5145㎡ 규모로 건립한다. 내부에는 ▲공연장 ▲카페테리아 ▲오픈갤러리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과 2층에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카페테리아, 오픈갤러리를, 지상 3층에는 문화체험실을 조성한다.

공공도서관은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4139㎡ 규모로 만든다. 이곳에는 ▲어린이열람실 ▲북카페 ▲각종 체험실 ▲종합 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순항’ 작년보다 5개월 앞서 1000억 돌파

농식품부, 1조 목표... 맞춤형 지원 강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로 농가 수익 ↑
신규품목 추가·설 특화상품 할인 효과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박차

정부가 올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액 목표를 1조 원으로 잡았다. 1월23일 기준 이미 목표치의 10분의 1인 1000억 원을 넘어서었다. 지난해 1000억 원 돌파 시점(2024년 6월17일)과 비교하면 국내 온라인도매시장은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위해 ▲가공식품·수산물 등 거래 품목 지속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대형유통업체·온라인소매상 등 구매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 ▲판매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한 거래 매칭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파른 성장세와 관련해, 가입요건 완화·거래부류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통한 이용자 수의 대폭 증가를 꾀했다. 작년 1월 기준 판매자 149개소·구매자 333개소에서 올해 1월 기준 판매자 1136개소·구매자 2834개소로 늘어났다.

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 경험 증가와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 체감 ▲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우유, 연근,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신규 품목의 거래가 개시됐다. 설 명절 기간 특화상품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성한 사과, 감귤, 배 등에 대한 운송비 50% 지원, 10% 할인지원 등의 지원책이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전년 12월 대비 거래액이 평균 20.6% 증가했고, 일평균 거래액도 전년도(18억 원)에 비해 100% 넘게 증가(38억 원)했다.

농식품부는 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번 설에 한라봉과 레드향 선물세트를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농식품부와 함께 10% 할인을 실시해 전년동기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620톤(t) 판매를 기록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유통비용은 낮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30일 출범했다. 이 도매시장은 거래 시 바로 정산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매업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도입 초기인 만큼 많은 판매·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동선별비·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 같은 애로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를 늘려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과 소비자가격 사이의 괴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올해 벼 재배면적 줄여 쌀값 하락 막는다

농식품부, 8만ha 감축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지자체별 자율 조정제를 추진한다.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각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한다. 이어 지역농협·생산자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하는 수순이다.

또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 및 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올해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관측 등 유통 및 소비 기

반도 지원한다. 정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해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식량·사회간접자본(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도 우대한다. 지자체와 농업인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달 5일 지자체·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정제 추진 방향 및 질의응답, 시스템 교육,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제도 등을 안내해 현장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모호한 법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예방

권익위, 부패 유발요인 272건 개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개정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와 관련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안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거나 불합리한 제재 및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 뒤, 148개 법령에서 총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과 제도가 입안되는 단계에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로, 총 107건(39.3%)이 해당됐다. 그다음으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으며, 총

53개 법령에서 89건(35.8%)의 개선이 권고됐다. 이어 환경·보건 분야(34개 법령, 68건, 23.0%), 교육·문화 분야(20개 법령, 40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했다.

이 외에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허용 질량의 특성과 유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해 의료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행정제재의 합리성도 강화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온라인쇼핑 최대치 경신에도 ‘증가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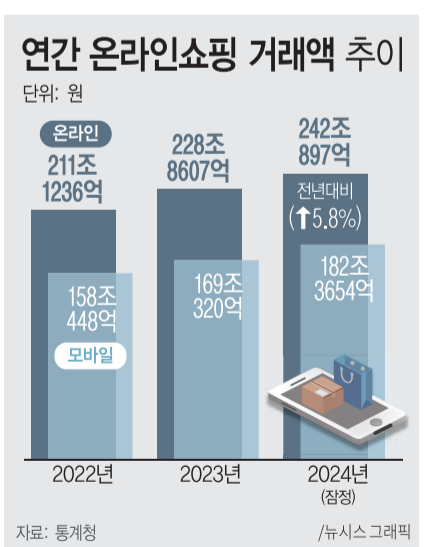
통계청, ‘2024년 온라인쇼핑 동향’
증가율 한 자릿수... 티메프 사태 영향
배달 음식서비스 등 거래 크게 증가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으나,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작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민간소비의 부진을 비롯해 티몬·위메프 사태, 12·3사태 등이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5.8% 늘어난 242조8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배달 등 음식서비스(10.9%)와 음식료품(14.8%)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교통서비스(9.3%)도 크게 성장했다.

반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전년대비 증가 폭은 2022년 10.3%, 2023년 8.3%, 2024년 5.8% 등 둔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의 ‘5%대’ 수치는 역대 최저다. 지난해 7월 이른바 티메



프 사태 이후 월별 증가율도 8월 2.0%, 9월 2.2%, 10월 0.7%, 11월 1.0%, 12월 3.2% 등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2·3사태 여파로 연말 특수도 사라졌다. 1년 전인 2023년 12월 거래액 증가율이 7.7%에 달한 반면 2024년 12월 거래액은 3.2% 느는 데 그쳤다.

‘해외직구’는 증가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일본 업체에서 구매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온라

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전년대비 19.1% 늘어난 7조9583억 원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액이다.

해외직구는 미국(-8.9%)에서 감소했으나 중국(48.0%), 일본(16.4%) 등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온라인쇼핑 앱이 강세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0.5%)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12.9%), 생활·자동차용품(72.1%), 가전·전자(26.4%) 등에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건을 직접 파는 판매액도 1조7225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지역별로, 중국(-7.4%) 등에서 감소했지만 미국(41.7%), 기타 아시아(150.9%) 등에서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음반·비디오·악기(-39.1%) 등에서 줄었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436.7%),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17.5%), 음식료품(65.0%) 등에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직업훈련기관 맞춤형 컨설팅 받으세요”

고용부, 훈련과정 혁신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를 통해 훈련 운영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과 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새로운 교수법

적용을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해 직업훈련의 혁신적 전환을 돕는다. 해당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와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돕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00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2~3회의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포항시,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자연·도시 인프라 한번에

오는 2030년까지 추진 박차
도심 내 녹지 면적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계획

포항시가 오는 2030년까지 '도시와 자연이 연결된 쾌적한 정원 속의 도시, Garden City'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으로 지난해까지 215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도시숲 5개소에서 연간 8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인증받아 탄소 배출 도시에서 상생 도시로 이미지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포항철길숲 조성 이후 사람 중심의 걷는 문화가 형성돼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골목상권에서 연간 4347억 원의 소비 효과가 발생하며 건물 신축이 증가하는 등 자발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도도시숲.

▲숲길과 물길이 이어지는 녹색그물망(Green Connector network) 구축 ▲보행 중심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구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회복력 확보를 3대 추진 방향으로 그린웨이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선형녹지 확충과 100만 평 대형 공원(민간 공원 특례사업 207만 3000㎡, 자체공원 136만 2000㎡) 조성으로 도심 내 녹지 면적을 늘

리고, 어디서나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정원 속의 도시'를 구현한다.

또한 확산전 복원으로 포항철길숲과 동빈나무, 포항운하, 형산강을 연결하고, 포스코대로에 보행자 중심거리를 조성해 사람 중심 순환형 녹지축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천 냉천지역에 방재형 도시숲 2만㎡를 조성하고, 공단배후지역인 해도동 일원 생활권에 도시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력

도 증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경사 문화재 주변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고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112km 해안둘레길 위편 구간 개체공사와 해변산책로 경관 개선 사업, 맨발걷기 인프라 확충 등으로 삶의 여유와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녹색 매력 도시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방침이다.

아울러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영국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 인증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도시녹화 분야 선진도시와 교류를 이어가며, 녹색도시로 변화하는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로 탄소배출 도시에서 상생 도시로 전환,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린웨이 녹지축을 중심으로 숲길을 걸으며 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보행 유동 인구를 늘려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장성군

'장성 방문의 해' 공식 표어 확정

장성군이 최근 '2025년 장성 방문의 해' 공식 표어(슬로건)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총 881건의 응모작이 접수된 가운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 4건, 우수 9건을 최종 선정했다. 의미전달성, 심미성, 대중성 등을 중점 평가했다.

대상에 선정된 '다시 찾는 장성, 2025 설렘의 해'는 '장성 방문의 해'의 추진 목적과 장성관광 활성화 의미를 잘 담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신안군

퍼플섬, 韓관광 100선 선정

전남 신안군의 '퍼플섬'이 한국관광 100선에 또다시 선정돼 관광 신안으로써의 이미지를 다져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내에서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다. 2012년부터 국내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번씩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안 퍼플섬'은 2019년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12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대상으로 수상했으며, 같은 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에 이어 2021~2022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창원시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경남 창원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드론 일상화 사업으로 글로벌 드론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드론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만든다.

드론 일상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은 올해 창원특례시 드론 촬영사진 및 영상 공모전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사천시

대중교통비 환급 '경남패스' 시행

사천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경남패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환급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기존 K-패스를 사용 중인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카드가 없는 시민들은 가까운 은행 등에서 K-패스 카드 신청을 한 후 K-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전남도, 민선 8기 30兆 투자유치 순항

3년간 27兆 이상 투자유치 이끌어
주력산업, 총 실적 78.5% 차지
역점·신사업 발굴 등 조기달성 박차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첨단기술 중심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30조 원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도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고 역량을 모은 결과 지난 3년간 27조 이상 투자유치를 이끌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블록경제에 따른 무역갈등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투자수요가 감소한 경제 침체 등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다.

전남도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 과감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말까지

국내외 기업 403개와 총 27조 2872억 원의 투자협약을 했다. 2만 1618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에너지, 첨단소재,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이 20조 6920억 원으로 총 실적의 78.5%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존 투자유치 활동에 차별화된 전략을 접목해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해상풍력 기자재, 데이터센터 등 역점 산업과 전남지역 산업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신규 산업을 발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버스정류소, 맨홀, 안내표지판 적용

부산시는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시 전체에 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이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큰 공공시설물 3종을 선정해 표준 디자인 개발을 추진했다.

지난해 16개 구·군의 우선순위 수요조사를 거쳐 부산형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용역을 진행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 디자인은 ▲버스 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판 총 3종의 공공시설물에 적용한 것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특화형 버스정류소 디자인, 이미지. /부산시

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시설의 기능성을 강화하고 시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표준 디자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무분별한 도시 디자인을 지양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 걸맞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마련

93개 사업에 367억 편성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체계적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은 울산 전체 기업 14만 2135개 가운데 13만 5184개로 95.1%를 차지하며, 울산 전체 기업 종사자 40만 8938명 중 18만 8137명으로 46.0%를 차지한다.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시책과 혁신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성공 창업 지원 등 11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93개 사업에 367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 유지를 통한 고용 안정 및 지역 경제 기여를 위해 1730억원의 경영 안정자금 편성에 대출금리의 2.5% 이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이외 납부액의 30% 범위 내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노후화된 점포 환경과 위생·안전 개선을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계약 원가심사 통해 500억 절감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

경북도는 2024년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956건 1조 2804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024년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한 전체 절감률은 3.9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18건 417억원, 용역 248건 71억원, 물품구매 165건 5억

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5건 7억원이 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으로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자문을 통해 심도 있는 기술적 자문으로 공사 현장 내 발주청, 시공사 간의 소통의 역할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 이바지해 왔다.

/경북=이성호 기자 leesh0412@

간편식·가성비·트렌드·신제품 다잡았다... 편의점 '승승장구'

작년 유통시장 오프라인 매출 백화점 17.4%, 편의점 17.3%

노브랜드 도입 이마트24 1000곳 GS25·CU, 점포수 꾸준히 증가

편의점이 불경기 속에서도 홀로 성장을 이어가며 유통업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편식을 찾는 수요 증가, 가성비 상품 출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개발 등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이 백화점의 매출 비중을 빠르게 추격하며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였던 백화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시장 주요 채널별 오프라인 매출 비중에서 백화점이 17.4%, 편의점이 17.3%를 기록했다. 편의점이



이마트24 노브랜드 점포 이미지.

/이마트24

기존 유통 강자인 백화점의 매출 비중을 불과 0.1%p 차이로 바짝 따라붙은 것이다.

다른 유통업체와 비교해도 불경기 속에서 편의점만이 매출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4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3.3%p,

대형마트는 -2.3%p, 슈퍼마켓·잡화점은 -5.9%p 감소한 반면, 편의점은 0.0%대를 유지하며 유일하게 감소세를 피했다.

편의점의 성장세는 점포 확장에서도 두드러진다. 최근 이마트24는 노브랜드 도입 점포가 1000개를 돌파했다. 특히 신규 점포 중 기존 슈퍼마켓을 운영하

다가 이마트24 편의점으로 전환한 사례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GS25와 CU 역시 2020년 각각 약 1만 4000개였던 점포 수를 지난해 약 1만 8000개까지 확대하며 꾸준히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노브랜드 도입 점포를 올해 2500개, 2026년까지 4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의 지속적인 성장 배경에는 인기 콘텐츠와의 협업 및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주기적인 신제품 출시가 근본적으로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GS25는 예능 콘텐츠와 연계해 소비자 참여형 도시락을 출시했다. 유튜브 채널 '오오티비 스튜디오'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 '외외자'와 협업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락을 개발했으며,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제품을 GS25가 상품화했다.

세븐일레븐은 구독자 170만 명 이상의 유튜버 '미미미누'와 협업해 밸런타인데이 한정 기획 상품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CU는 최근 소비자 맞춤형 소비 트렌드인 '토픽 경제'를 반영해 떠먹는 요거트 제품군을 확대하며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취향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픽 옵션을 제공해 개인화된 소비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초저가 상품, 인기 콘텐츠 협업 제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등이 1020세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더현대 서울,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돕는다

'글로벌 투어 서포트' 서비스 공식 운영 무료 캐리어 보관 서비스 상시 제공 영어·중국어·일본어 구사직원 상주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돕기 위해 '글로벌 투어 서포트' 서비스를 공식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더현대 서울이 '글로벌 투어 서포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는 더현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국가는 세금 환급 기준으로 2021년 40개국에서 2022년 82개국, 2023년 125개국, 지난해 156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출점 3년 만에 방문 국가 수가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우선 '글로벌 투어 서포트' 서비스의 일환으로 더현대 서울 1층에 있는 투어리스트 데스크에서 무료 캐리어 보관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



더현대 서울에서 캐리어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모습.

/현대백화점

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1층 컨시어지 데스크에 셀프 투어맵을 비치했다. 아울러 점내 곳곳에 부착된 큐알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길 찾기 서비스도 도입했다. 모바일 길 찾기 서비스는 우선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며, 향후 점차적으로 다른 언어로도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더현대 서울은 글로벌 고객을

위해 현대백화점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인 '젤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객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매장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용 키트 출시, 문화센터와 연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서울 내 고급 호텔과 협력한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컬리 '저속 노화' 식품 판매량 '경충'

잡곡 판매량 30%, 샐러드 10% 증가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최근 웰에이징 트렌드에 맞춰 저속노화 식품 상품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웰에이징 트렌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의미한다.

컬리에 따르면, 대표적인 저속노화 식품인 잡곡, 샐러드, 이너뷰티 제품의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잡곡 상품군은 30% 이상 증가했으며, 샐러드와 이너뷰티의 판매도 각각 10%, 11% 늘었다.

저속노화 식품의 인기는 최근 3개월 동안 더욱 두드러졌다. 식단 관리 도시락 브랜드 마이비비의 '다이어트 도시락 8종'은 지난해 12월 판매량이 9월 대비 130% 증가했다. 또, 샐러드 전문점 샐러드판다의 '병 샐러드 12종'과 이영애의 건강미식 '효소 30포 3종' 제품 역시 각각 35%, 91% 상승했다.



웰에이징 트렌드에 따른 '저속노화 식품' 상품군.

/컬리

한편, 컬리는 이달 14일까지 '다이어트 추천 식단' 기획전을 진행한다. 라이틀리의 곤약볶음밥 7종, 픽미롤의 귀리 곤약김밥 3종, 스윗밸런스의 오늘의 식단 도시락 6종 등 150여 개 상품을 최대 81%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컬리 관계자는 "최근 저속노화 식품이 건강식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며 "컬리는 앞으로도 저속노화 식품 등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의 건강한 한 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컨셉, 데이트룩·개강룩 등 스타일링 추천

9일까지 '스타일 플레이' 행사

패션 플랫폼 W컨셉은 밸런타인데이, 입학 등 시즌에 맞춰 봄 스타일링 추천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W컨셉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숏폼 형식으로 만나는 봄 스타일링을 주제로 '스타일 플레이' 행사를 연다. ▲밸런타인데이 ▲입학·졸업 ▲웨딩 ▲야외활동 등 시즌 키워드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링을 짧은 영상 형식인 숏폼으로 선보인다.

특히,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데이트룩을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캐시미어 머플러 스타일링, 로맨틱 무드 가방, 데이트에 착용하기 좋은 주얼리 등 테마별 영상을 준비했다.

또한 입학 시즌에 맞춘 캐주얼한 개강룩, 가방과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룩, 봄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하객룩, 건강 관리를 위한 애슬레저 스타일링 등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는 토와브, 망고매니플리즈, 리엘, 던스트, 마우슬레움 등 40



W컨셉, 숏폼으로 만나는 봄 추천 스타일링 관련 포스터 이미지.

/W컨셉

여 개의 액세서리 및 패션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W컨셉은 쇼핑 지원을 위해 전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과 카테고리별 12% 할인쿠폰 4장 등 5종 쿠폰팩도 발급한다.

/안재선 기자

홈플러스, 설 선물세트 '가성비 품목' 인기

최저가 만감류·샤인머스켓 선물 세트 신장률 보다 35%p 높아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날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성비 품목이 기존 인기 품목 대비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4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최저가로 선보인 만감류와 샤인머스켓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은 배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보다 35%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연말 환율 급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산 만감류 선물세트를 확대하고, '제주 천혜향 세트' 등을 2만원대에 선보인 것이 주효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김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기존 인기 품목인 굴비 선물세트보다 19%포인트 높았으며, '미국산 L A식 꽃갈비 냉동세트' 등 수입육의 매출 신장률이 한우 제품보다 22%포인트 더 올랐다. 스펀지나 참치 등 통조림 선물세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차 높아지는 명절 물가에 고객들이 5만원대 이하의 가성비 선물세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통조림과 주류 선물세트에 비해 보관 기간이 짧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미국에 법인 설립... K뷰티 플랫폼, 글로벌 판 키운다

CJ올리브영 미국 현지법인 설립
글로벌몰서 K뷰티 150국에 판매
미국 오프라인매장 후보지 물색

코리아테크 '와이레스' 공개
국내 인디브랜드 제품 역직구

국내 뷰티 유통 기업들이 미국을 전진기지로 삼고 K뷰티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대표 뷰티 유통 강자인 CJ올리브영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현지 법인 'CJ올리브영 유에스에이'를 설립했다고 4일 밝혔다.

'CJ올리브영 유에스에이'는 상품 공급, 마케팅, 물류시스템 구축 등 핵심 기능을 갖춰 지속가능한 K뷰티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올리브영은 이번 미국 법인 설립이 기존 올리브영 글로벌몰과 상승 효과를 이뤄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은 해외 소비자들 이 K뷰티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하파크리스틴' 매장 전경.

/피피비스튜디오스

창구로, 전 세계 150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다.

올리브영은 북미 지역 최적의 사용자 환경과 결제수단, 상품 정보 노출 방식을 구현해 올리브영 글로벌몰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 현지 데이터와 소비자 요구를 분석해 국내 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리브영은 미국 오프라인매장 개점

도 추진한다. 현재 1호점을 위한 여러 후보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은 이번 'CJ올리브영 유에스에이'를 통해 물류 안정성과 배송 만족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는 글로벌몰과 올리브영 한국 본사 시스템을 연동해 재고의 입고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향후 CJ대한통운 미국 법인과 협업해 현지에서 상품을 직접 발송

하는 물류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양한 뷰티 제품을 개발, 브랜딩, 마케팅, 유통하는 기업인 코리아테크도 최근 K뷰티 플랫폼 '와이레스'를 공개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와이레스는 국내 인디브랜드의 제품을 해외에서 역직구하는 형태로, 자신만의 취향을 찾고자 하는 전 세계의 젠지 세대를 정조준한다.

이와 관련 코리아테크는 미국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듀프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듀프는 유명 브랜드나 고가 제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인 대체 상품을 의미한다.

와이레스도 듀프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제품군이 파운데이션, 파우더, 립스틱, 하이라이터 등 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특징이다.

또 코리아테크는 K뷰티 글로벌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와이레스 입점 수수료나 마케팅비를 최소화하는 등 인디브랜드 상생 전략도 펼친다. 코리아테크는

앞서 지난 2020년 코스메틱 브랜드 가치를 선보이며 인디 브랜드로 성과를 낸 바 있다. 가히는 출시 후 2300만개가 팔리는 등 '멀티밤'이라는 새로운 제품 유형으로 K뷰티 경쟁력을 높였다.

K뷰티 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을 운영하는 피피비스튜디오스는 일찍이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브랜드 영역을 넓혀 국내 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피피비스튜디오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자사 뷰티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 매장을 잇따라 마련했다.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표 패션거리 멜로즈 애비뉴에서 1호점 문을 열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이애미에서 2호점을 개장했다.

피피비스튜디오스는 검안이 필요한 뷰티렌즈의 특성을 특화시켜 뷰티렌즈 구입을 위해 고객들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 동안 K뷰티와 K컬처를 경험하는 미국 내 'K뷰티 성지'를 완성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2024년 실적발표

LG생활건강, 영업이익 5.7% 줄어 4590억

지난 4분기 영업이익 20% 하락 영향
연간 매출액 6조8119억, 0.1% 성장

LG생활건강의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 줄어든 4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영향이 컸다.

LG생활건강은 4일 실적 공시를 통해 2024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0.1% 성장한 6조 81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7% 줄어든 434억원에 그친 여파다. 회사측은 인력 구조조정 등 일회성 비용 약 200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한해 당기순이익은 2039억원으로 24.7% 증가했다.

화장품(Beauty) 사업 부문의 연간 매출은 2조8506억원, 영업이익은 1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 8% 증가했다. 중국과 북미, 일본 등 해외 사업이 호조를 나타냈고, 국내에서는 온라인과 H&B 채널에서 성장을 지속하며 매출이 증가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에서 호실적을 달성한 '더후'가 럭셔리 브랜드 입지를 강화했고, 북미와 일본 시장에서는 '더페이스샵' '빌리프' 'CNP' 등 전략 브랜드의 매출이 확대됐다"며 "중국 광군제, 미국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일본 쿠펰 메가와리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행사와 연계한 마케팅 투자가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역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생활용품(HDB) 부문 연간 매출은 2조 1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1328억원으로 6%

늘었다. '피지오겔', '유시몰'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견고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침체로 전체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해외 사업 효율화와 브랜드 및 채널 다변화 전략으로 전년 대비 성장했다.

음료(Refreshment) 사업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4110억원을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65.1% 감소한 102억원에 그쳤다. 연간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21.9% 감소한 1681억원에 머물렀다.

회사 관계자는 "코카-콜라 제로, 몬스터 에너지 등 제로 탄산 및 에너지 음료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며 매출은 한 자릿수 증가했다"며 "인력 구조조정 등 사업 효율화 관련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보령, 연간매출 1조 돌파... 전년비 18% ↑

당기순익 81% 급증한 728억

중견 제약사 보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보령은 지난 2024년도 연결기준 매출 1조171억원, 영업이익은 705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728억원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영업이익은 3.2%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81% 급증했다.

보령은 지난해 모든 분기에 전년 대비 매출액에서 성장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분기 2336억원, 2분기 2556억원, 3분기 2710억원, 4분기 2569억원 등의

매출을 냈다. 특히 전문의약품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보령이 지난해 전문의약품 사업으로 올린 매출은 8611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전문의약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4.6%에 이른다.

질환군별로 살펴보면, 우선 스페셜티 케어 부문이 외형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스페셜티 케어 부문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해당 사업 부문에는 만성 질환군 외의 다양한 질환군 제품이 포함된다. 특히 보령이 지난해부터 공동 판매를 시작한 HK이노엔의 케어캡 등 'K신약'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다.

보령은 항암 부문에서는 레거시 브랜드 인수(LBA) 전략을 펼쳐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다졌다. 항암 부문 매출은 2413억원으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수익성을 실현했다. 보령은 미국 일라이 릴리의 항암제 젠자, 알람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부문 매출은 1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소폭 감소했다. 이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신약 '카나브' 제품군을 비롯한 만성질환 품목 매출로, 보령은 2023년 4분기 공동판매 준비로 인한 초도물량 일괄 출고 효과를 감안하면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령은 올해 상반기에도 카나브 패밀리 신제품을 출시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파스쿠찌, 이탈리아 감성으로 리브랜딩

'센스 오브 이탈리아' 슬로건



파스쿠찌 센트로서면점(위)과 파스쿠찌 에스프레소바 양재점. /SPC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가 리브랜딩에 나섰다.

이번 리브랜딩은 '센스 오브 이탈리아(Sense Of Italy)'를 슬로건으로 일상에서 이탈리아 감성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탈리아 감성이 담긴 공간을 느끼는 시각과 촉각, 에스프레소를 비롯한 다양한 커피의 추출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후각과 청각, 이탈리아 정통의 맛을 구현한 메뉴에서 경험하는 미각 등 고객에게 총체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페 단어 제외한 신규BI 공개
우드벽면 적용 인테리어 연출

에소플·카사타 티라미수 등
신규콘셉트 시그니처메뉴 선보

신규 BI와 인테리어도 공개했다. 보다 폭넓은 이탈리아 감성을 다루기 위해 기존 로고에 있던 카페(Caffe)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특유의 황금빛 크레마를 상징하는 골드색상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매장 내부는 에스프레소가 연상되는 컬러의 우드를 벽면에 적용하고 격자 선반과 플라워 패턴을 매치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새로운 브랜드 콘셉트에 맞춰 시그니처 메뉴도 선보였다. 에스프레소 1잔과 와 베리에이션 음료 1잔을 함께 구성한 '에소플(에스프레소 플레이트)' 이탈리아 대표적인 디저트인 마스카포네 치즈를 사용한 '카사타 티라미수' 등이다. 에소플은 오리지널 에스프레소와 함께 베리에이션 음료로 아포가토(Affogato), 콘 파나(Con Panna), 스트라파짜토(Strapazzato), 마끼아또(Macchiato) 등 4종의 음료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

파스쿠찌에서 만든 커피 메뉴는 이탈리아 본사에서 직수입한 대표 블렌드 원두 '골든삭(Golden Sack)'을 사용한다. 리브랜딩 캠페인을 통해 파스쿠찌는 이탈리아 감성을 반영한 신메뉴를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파스쿠찌는 새로운 BI 인테리어를 적용한 리브랜딩 매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리브랜딩 매장은 파스쿠찌의 핵심 가치와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 매장 '코어', 이탈리아 정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특화 메뉴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직영 매장 '센트로', 에스프레소 커피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에스프레소 바', 휴게소 등 특수 상권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의 레드블랙 조합의 오리지널 인테리어를 적용한 '특수 매장' 등 운영 콘셉트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파스쿠찌는 리브랜딩 캠페인의 일환으로 3일 에스파(aespa)의 멤버 '카리나'를 모델로 한 TV 광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 광고는 10일 TV·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0th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포스코이앤씨, 사회공헌성금 2억5000만원 기부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금은 지역내 미래 세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저탄소 환경친화 활동 등에 사용된다. 정창식 포스코이앤씨 경영지원본부장(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고려아연, 자립준비청년 지원전담기관에 1억 전달
 고려아연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 1억원은 '청년 참여 중심'의 자립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기준 고려아연 지속가능 경영본부장(왼쪽), 장다교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



한화비전,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에 책상 선물
 한화비전이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책상을 선물한다고 4일 밝혔다. 한화비전은 3일 경기 성남시 청에서 교육 지원 사업 '비전(VISION)을 키우는 책상'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한화비전이 출연금 3000만원은 아동 지원 사업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의 책상을 구매하는 데 쓰인다. /한화비전



셀트리온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셀트리온제약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CP 도입을 통해 준법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제약

인사

◆메디톡스그룹 ◇메디톡스 △이사 한관수 △부장 최재준 민형기 송정현 정대희 한상기 조영래 윤승환 권오득

부음

- ▲ 추중호씨 별세, 조병관(전 KBS 춘천방송총국 보도국장)씨 장모상 = 4일 오전,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33-254-5611
- ▲ 김선옥씨 별세, 김영호(브릿지경제신문 전국부장)씨 형제상 = 3일 오후 8시,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55-372-4447
- ▲ 장정숙씨 별세, 광혜경(춘천시 통합돌봄과장)씨 모친상, 최우홍(홍천부군수)씨 장모상 = 4일 오전, 교원예음 강원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9시. 033-261-4441

현대그룹,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속가능 경영 '젠걸음'

주요 사업장에 복지카페 등 마련
 "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 필수 요건"

현대그룹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며 새해에도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무백스 등 주요 계열사 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한 사내 복지 카페를 개장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월 22일 충주캠퍼스 본관 1층에 '엘리스 카페'를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장애인 바리스타에게 사원증을 걸어주며 입사를 축하했다. 엘리스 카페는 운영 수익의 일부를 장애인 단체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현대무백스도 지난 1월 23일 청



(왼쪽 여덟번째)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가 장애인 바리스타들과 함께 사내 복지 카페인 '엘리스 카페' 오픈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그룹

라R&D센터 1층 로비에 '카페 웨이브466'을 오픈했다. 도익한 현대무백스 대표이사 등 현대무백스 임직원들 역시 이날 쿠키와 음료를 함께하며 장애인 직원들을 맞이했다. 현대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장애인 고용에 함께하고 있다. 현대아

산은 지난 2024년 9월 이동원 보치아(장애인 스포츠 종목) 선수를 채용해 대회 출전 등 선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반안트리클럽앤스파서는 세탁 업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영상디자인 업무 등에 각각 장애인을 투입하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

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사회공헌뿐 아니라 회사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ESG 경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

박수영·우재준·김원이·오세희 선정

국민의힘 박수영·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오세희 의원이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왼쪽 3번째부터)우재준 의원, 박수영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원이 의원, 오세희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자금 활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위 완화 등을 위한 토론회

를 주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자율적 적용을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김원이 의원은 에너지 비용을 납

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포함,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성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국회, 정부,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동원그룹, 자회사 대표이사 인사 발표 동원산업 신임대표에 박상진 부사장 (사업부문)

스타키스트 대표에 민은홍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사업부문과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StarKist)의 대표이사 인사를 발표했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스타키스트와 동원그룹 계열사의 글로벌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박상진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신임 대표는 1998년 동원산업에 입사해 영업, 재경, 기획 등을 거쳐 해양수산본부장으로 오르는 등 해양수산 전문가로 역량을 쌓아왔다. 동원그룹은 오는 3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할 계획이다. 기존 동원산업 사업부문을 맡던 민은홍 대표는 사장 승진과 함께 스



박상진 동원산업 대표, 민은홍 스타키스트 CEO

타키스트 CEO로 자리를 옮겼다. P&G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지역 대표를 맡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쌓은 민 대표는 스타키스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대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 사업 부문별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실시했다"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트랜시스, 농어촌 상생활동 앞장

'ESG 실천인정제' 2년 연속 선정

현대트랜시스가 지역사회 상생협력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대트랜시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기관의 상생협력 노력과

ESG 실천 활동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제도로 현대트랜시스는 생산시설이 위치한 충남지역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상생활동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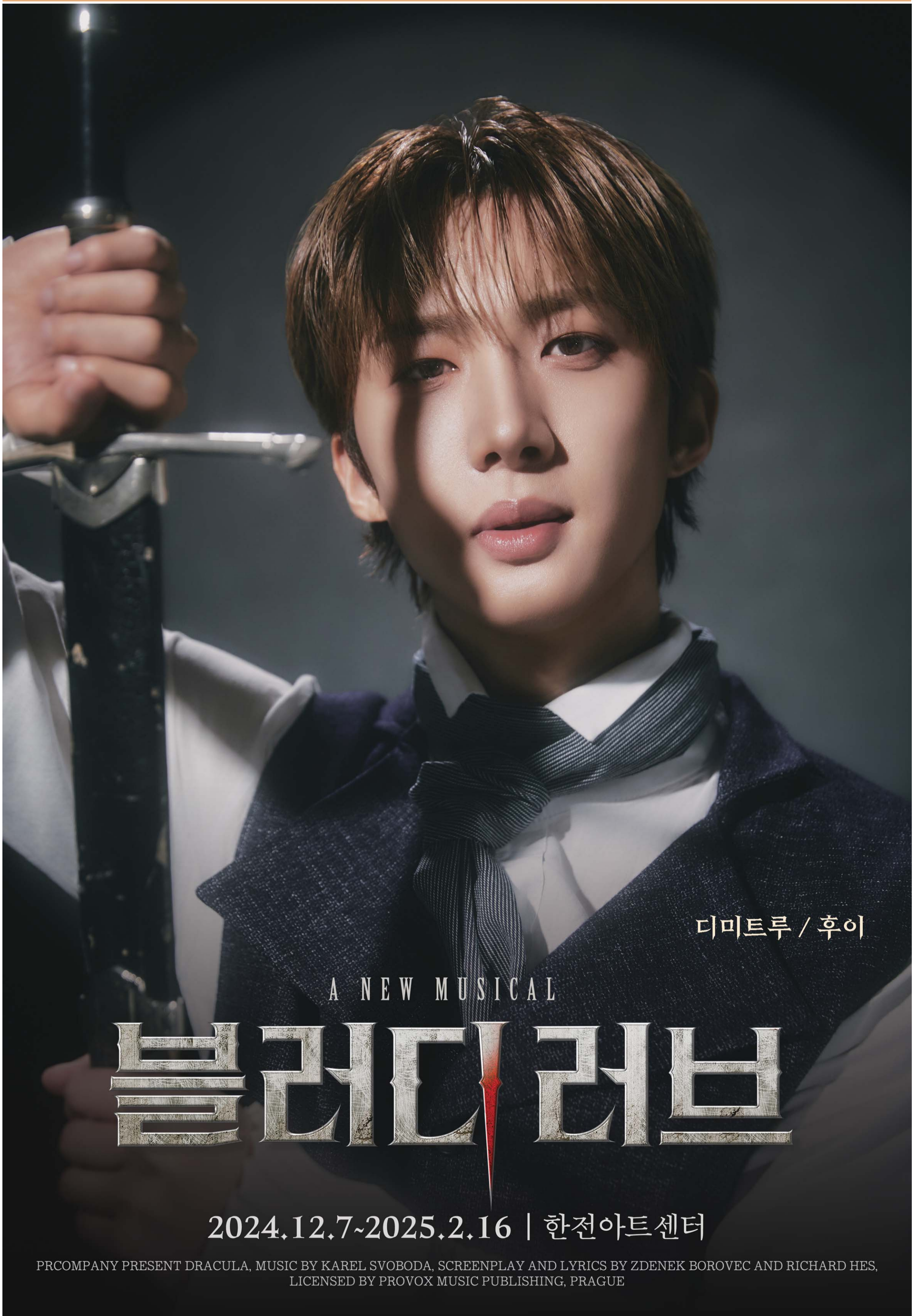
현대트랜시스 서산지원실장 광종훈 상무는 "현대트랜시스는 서산을 포함한 충남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며 "충남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한공회, 11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1일에 '제1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4일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을 주제

로 개최된다. 서스틴베스트 류호정 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실증분석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펴본다. /허정윤기자 zelkova@



디미트루 / 후이

A NEW MUSICAL

블러디 러브

2024.12.7~2025.2.16 | 한전아트센터

PRCOMPANY PRESENT DRACULA, MUSIC BY KAREL SVOBODA, SCREENPLAY AND LYRICS BY ZDENEK BOROVEC AND RICHARD HES,
LICENSED BY PROVOX MUSIC PUBLISHING, PRAGUE

트럼프식 관세정책, 허언될 가능성 커



한용수의
돌직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공언했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예외·면제가 없을 것이며 상대국의 대응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관세' 조치도 포함했다. 트럼프는 이같은 조치가 불법 이민이나 마약 팬타닐 유입 경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선전포고를 받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적인 대응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의 대응은 트럼프 1기 때를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의 보복관세 부과나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유럽에도 관세 부과를 공언한 바 있으며, 반도체,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도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유럽연합과도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주요국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정책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혼란과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실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지, 얼마나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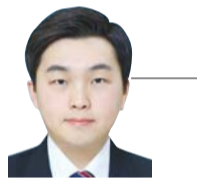
트럼프의 행정명령 직후 미국 철강노조는 "매년 1조3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이 미국 내 140만 개, 캐나다 내 23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 등으로 비판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자체가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에서 들여오던 야채와 과일 등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

고, 캐나다산 석유값도 올라 이미 오른 미국 내 유류가격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본인의 선거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실현하기 위해 자국 소비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인데, 물가 인상과 일자리 축소를 반길 미국인은 없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공언은 점차 힘을 잃고 허언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긴급 회의를 열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방식, 윈윈하는 방식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대응 시나리오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등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 등도 거론된다. 트럼프의 선전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레 우리의 양보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hys@metroseoul.co.kr

청년·후계농 지원 확대, 실질적 대책 필요



김대환
(정책사회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후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의 대출 방식을 기존의 선착순에서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농촌은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억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20년 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에는 예산이 각각 11월과 8월에 조기 소진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에 선별 방식을 도입했지만, 농지 및 농업시설 매입을 위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청년·후계농들이 후순위로 조정되면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올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의 수혜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대출 규모를 전년보다 2000억원 줄여든 6000억원만 반영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규 대출 규모를 1조 5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농업계에서는 신규 농업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별 선정률의 차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전국에서 3845명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된 인원은 1033명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선정률이 25.4%로, 신청자의 약 75%가 탈락한 셈이다. 이는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수요를 고려한 자금 배정이 아닌, 청년·후계농 선정 비율에 맞춰 배정한 결과로, 실제 수요와는 맞지 않는 배분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후계·청년 농업인의 육성은 대한민국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dh@

오늘의 운세 2월 5일 (음 1월 8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시간약속을 준수. 48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60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72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 84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 소** 3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외출을 자제. 49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 수를 부른다. 61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73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계획을. 85년생 행운과 행복은 다른 결말이 오니.
- 호랑이** 38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50년생 답답해도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시켜라. 6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74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6년생 감사한 일이 펼쳐진다.
- 토끼** 39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자. 51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63년생 침묵은 금이다. 75년생 의사 표현이 정확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87년생 이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신중하게 선택.
- 염** 40년생 동료와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하니 인내. 52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64년생 가족에게는 양보와 희생이 따른다. 76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88년생 주변의 마음을 읽고 신망도 받는다.
- 뱀** 41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53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65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7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소핑을 자제. 89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도 먹은 것이 없을 것.
- 말** 42년생 여의주를 얻었으니 무슨 일든 도전해도 좋다. 54년생 흡연은 신중히. 66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자. 78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의 기준에 맞추는 필요는 없다. 90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다.
- 양** 43년생 닭이 물 먹듯 술을 조금씩이라도 먹고 싶다. 55년생 부인의 칭찬에 신바람이 난다. 67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79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91년생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 원숭이** 44년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56년생 불평보다는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지켜라. 68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난파를 본다. 80년생 친한 친구 문상 갈 일이 생긴다. 92년생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하고 실행해야 하니.
- 닭** 45년생 혼자서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57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슬픈 현실. 69년생 연인에게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적다. 81년생 웃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야 할 것이다. 93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 개** 46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해결. 58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익을 준다. 70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 82년생 배가 고프면 반찬이 없더라도 밥이 맛있다. 94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 돼지** 47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려워니 중심을. 59년생 성과도 좋으니 전진. 71년생 마음을 비우고 자식을 대하라. 83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95년생 세상 사는 데 반발심과 불만이 많은 것은 자신의 탓으로 돌아온다.



김상회의四季 시간으로 만든 백만장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약속 하나만이라도 잘 준수한다면 운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백만장자는 부자나 돈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 사주에 특별한 운이 없는 사람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사주가 그리 특출날 것 없고 운까지 없으면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사주가 형편없는 백만장자가 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 남자는 상담을 와서 자기는 운이 나빠서인지 어려서는 가난한 부모 아래서 끼니를 자주 걸었다고 한다. 대학교 학비도 직접 돈을 벌어서 마련했고 어렵게 졸업했다.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직장 정치에 치여서 승진에 밀렸다. 답답해서 사주를 보니 관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만 잘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표를 내고 처남과 프랜차이즈를 벌었는데 2년 만에 망했다. 재운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그 남자의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백만장자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 이런 어떻게 된 걸까. 사주는 안 좋고 운도 따르지 않자 그는 이를 악물었다. 대학생으로 과외를 할 때 자기가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재능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아내와 작은 학원을 열고 밤낮없이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쳤다. 열심히 해야 나쁜 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은 강북 중심지에서 명문대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운세가 좋아서가 아니다. 시간약속을 준수했고 시간에 기대야 한다면 생존에서 양보하며 잠을 덜자고 남보다 더 전력을 다했다. 그는 좋은 운세를 스스로 만들어 오늘의 재산을 일궈냈는데 사주가 나쁘니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행하여 좋은 운세를 만들어 일구었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08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7 8 5 1 2 3
2 7 5
2 6
1 8 9 6 2 4 7 3
5 1
6 3 1
5 1 9 1
8 5 6 7

2 8 3
8 6
3 6 7 5 2
9 8 4 7
5 7 8 9
8 7 9 5
1 4 2 7 6
7 5
8 9 7

1 6 2 9 9 8 7 2
2 8 9 6 7 1 9 8
9 1 6 7 8 2 9 1
7 2 8 1 6 9 6 9
8 2 7 5 9 6 8 1
9 7 9 8 1 1 8 6
8 9 1 1 6 7 2 9
1 8 2 9 6 7 9 1 8
6 9 1 9 8 2 8 2 7

1 2 1 8 6 9 9 7 8
7 9 8 8 9 1 2 1 6
8 6 9 1 2 7 1 9 8
9 8 9 2 6 1 8 2 1
6 7 8 1 8 2 1 9 9
2 1 1 7 9 8 6 8 9
1 8 2 9 1 8 6 7 8
9 9 6 2 1 8 7 8 1
8 2 7 9 8 6 5 1 2

플랫폼 경쟁력 키우는 선진국 규제·역차별 등 족쇄 채우는 韓

美·中 등 자국기업 육성 주력 韓, '플랫폼 진흥법' 중요성 커져 "규제 아닌 발전을 논해야 할 때"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성장을 위한 정책을 펴는 반면 한국은 역차별 등 오히려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 등 17개 법안(1월25일 기준)이 모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규모 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도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타트업언라이언스는 '규제에 관한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



스타트업언라이언스 '규제에 관한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

자 단체 구성,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유형'은 특정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대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혼합 유형'은 거래 공정화와 독점규제 두 유형을 결합,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 및 금지 사항 뿐만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스타트업언라이언스 정주연 전문위원은 "모든 유형의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거래 공정화 유형'의 경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과도하게 경직시키는 규제 방식은 다수 당사자와의 신속한 거래를 중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본질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전문위원은 또 "독점규제 유형'에서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 방식 규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해외 사업자는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의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힘들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자료과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 플랫폼사업자들만 규제가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기업 성장의 한계점을 설정해 혁신 의지 저해 우려 ▲'경쟁제한성 추정·입증 책임 전환'은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 ▲'임시중지명령' 도입시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 제약 우려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생태계 문제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언라이언스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담은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정을 위해서 반드시 정교한 실증적 분석과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스타트업언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지금도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오른쪽 2번째)이 지난 3일 세종시 기정원에서 부득라이(Vu Duc Loi)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장(왼쪽 네번째) 등 베트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기정원, 베트남에 스마트공장 기술 전수

대표단 8인 초청... 양국 협력 증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베트남에 스마트공장 기술을 전수한다.

기정원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지난 3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XuanCau Holdings, IGD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베트남 대표단을 초청해 스마트공장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양국 교류 증진 및 상호협력에 관한 교류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 추진현황 ▲국내 스마트공장 적용 및 성과 사례 ▲한국-베트남 간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한국의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한-베트남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광현 추진단장은 "그간의 한국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VKIST와 협의해 스마트 공장 ODA 사업의 지원모델 중 하나인 베트남 데모실증센터 구축을 VKIST 부지를 활용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올해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베트남 데모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도 마련한다.

/김승호 기자

LX판토스, 美 JV '박스링크스' 설립

(조인트벤처)

日 ONE 합작... 운송시장 본격 공략

LX판토스가 글로벌 6위 선사인 일본 ONE(오션네트웍스익스프레스)와 미국에 물류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 '박스링크스(Boxlinks)'를 설립하고 미국 내륙운송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한국 물류기업이 일본 최대 선사와 미국에 JV를 세운 것은 처음이다.

4일 LX판토스에 따르면 JV의 지분은 LX판토스가 51%, ONE가 49%를 보유한다. 양사는 지난 2023년부터 북미 물류시장 공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후 약 2년 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최근 JV설립을 완료했다.



양사는 JV 박스링크스를 통해 미국 내 인터모달(intermodal)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향만을 통해 미국 내륙으로 운송된 ONE의 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확보, 빈 컨테이너를 활용해 철도와 트럭 운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사진)는 "국제운송과 내륙철도를 연계한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 고도화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AI·AX 스타트업 육성... 1.5억 지원

20개社 선발... 25일까지 신청 접수 '초격차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지속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성장 분야인 인공지능(AI)·인공지능전환(AX)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기부는 'AI 핵심 분야 및 유망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공고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한 1단계 '마이크로 초격차'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고로 총 20개의 유망 AI·AX 스타트업을 선발한다.

소형언어모델(sLLM), 제조·바이오·콘텐츠 등 AI 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해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사

업화 자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인 '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보유한 GPU 기반 AI 컴퓨팅 자원, 실증센터 등의 인프라 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제조, 바이오, 콘텐츠 등 3대 분야에서 대·중견·중소기업 등 수요기업의 제품·서비스에 적용 및 고도화할 수 있는 혁신 AI 기술을 보유한 AX 스타트업 15개사를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협업 자금 8000만원과 신규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5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 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 중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업은 다음 단계인 '초격차 스타트업' 사업으로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관련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대기업과 유망 국내 AI 스타트업 간 수요기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유도와 판로를 확보해주는 'AI 초격차 챌린지'를 이달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는 LG전자와 함께 '온디바이스 AI' 분야 디바이스 제품을 기존 노트북에서 TV 등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웰컴 코리아와 신규로 '버티컬 AI'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신규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2 | 해질 / 18:00

2월 5일 (수) 음력: 1월 8일

수도권 날씨: -12 ~ -5°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6/-6, 동두천 -15/-5, 가평 -15/-5, 파주 -16/-6, 서울 -12/-5, 양평 -15/-5, 인천 -12/-5, 수원 -12/-5, 용인 -12/-5, 평택 -13/-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증시, 美 관세 부과 유예에 상승... 닛케이 지수 0.72% ↑
▲트럼프, 머스크 억제 나서나... "통제받지 않은 권력 가진 것 아냐"

▲"영국, 트럼프 관세 부과시 보복 대응계획 수립해 검토"
▲중국,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美 관세 대응



▲5년 만에 EU 정상회의의 참석한 英... "야심찬 안보 협력 원해"
▲"중국서 미사일 추진제 원료 실은 선박 이란행"



편의점
가성비·트렌드
다 잡았다
니



Life

K뷰티 플랫폼
판 키운다
미국에 법인 설립
L2



조선왕조 상징하는 ‘사직단’ 풍년 바라던 500년 염원 담다

지난달 20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사직단을 찾았다.

/김현정 기자

♥ 되살아나는 서울 📍 종로구 ‘사직단’

“궐 안에 역도들이 창궐해 나라가 누란지세에 처했다. 그대들은 과인을 도와 역도들을 몰아내고 종묘와 사직을 바로 세우겠는가?” 지난해 M BN에서 방영된 사극 ‘세자가 사라졌다’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 등에는 ‘종묘’와 함께 ‘사직’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저 두 개념이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종묘는 사람을, 사직은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조선의 근본 상징하는 공간, 사직단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직단을 방문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와 독립문 방향으로 약 337m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 천도를 단행하며 1395년 경복궁 동편에 종묘를, 서편에 사직단을 조성했다. 사직은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사직단은 임금의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의미한다.

사직단 동쪽엔 사단이, 서쪽엔 직단이 설치됐다. 두 단은 한 변의 길이가 7.65m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약 1m다.

이중의 담이 단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안에는 ‘유’라고 불리는 낮은 담을, 바깥에는 4개의 신문이 세워진 담을 둘렀고, 그 외부엔 제사 준비를 위한 부속 시설을 뒀다.

1910년 전후 일제에 의해 제사가 폐지됐고, 부속 건물들이 헐려 두 단만 남겨진 상태에서 공원으로 조성됐다. 사직단은 1963년 사직 제121호로 지정됐으며, 1980년대에 담장과 부속 시설 일부가 복원됐다. 전 주이씨 대동종약원은 1988년부터 매해 이



제례를 총괄하는 전사청 일대.



사직대제를 위한 그릇이 전시된 제기고.



사직 제관의 복식.

조선시대, ‘종묘’와 함께 국가 근본 상징 토지·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 사직단 서쪽엔 제례 총괄 ‘전사청’ 위치해 제기, 제복 등 조선시대 제례 엿볼 수 있어

곳에서 사직 대제를 거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안향청 일대는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안전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거대한 회백색 장벽을 지나 샛길로 들어서 사직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문 맞은편에 자리한 동신문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신문, 서신문, 북신문이 설치됐다. 다른 홍살문과 달리 바깥 담장의 북문만 3개의 문으로 이뤄졌다. 신이 드나드는 문이라 격을 높인 것이라고.

안팎의 두 북문 사이에 제례 중 국왕이 서 있는 자리인 관위가 있었다. 유의 북문과 담장의 북문을 잇는 건 향축로(향과 축

문이 이동하는 길)이고, 여기서 서신문으로 어로(임금이 다니는 길)가 나 있다. 유의 바깥 서남쪽에 위치한 건물이 신위를 모시는 신실이다. 제사를 지내던 곳을 한 바퀴 휘 둘러본 뒤 전사청으로 갔다.

◆제례 음식 준비하는 곳, 전사청

제례를 총괄하는 전사청은 사직단 서쪽에 자리했다. 전사청은 전사청에서 제사 음식을 점검했다. 전사청 양옆에는 제물이 될 소, 양, 돼지 등을 잡는 재생정과 제사용 그릇을 보관하는 제기고가 배치됐다. 이외에 주요 시설로는 일하는 사람이 머물던 수복방, 절구를 두고 곡식을 찧던 장소인 저구

가, 우물 등이 있다. 전사청 일대의 시설은 일제강점기 때 전부 철거돼 공원으로 이용되다가 2021년 복원됐다.

이날 전사청 권역에선 제사 때 쓰인 각종 각색의 그릇을 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술잔으로 사용된 제기 ‘작’ ▲메조와 차조를 담는 제기 ‘궤’ ▲제례시 신을 맞이하기 위해 향을 피우는 제기 ‘향로’ ▲간을 한 소, 양, 돼지고깃국을 담는 제기 ‘형’ ▲산과 구름, 우레를 새긴 술항아리 ‘산뢰’ ▲쌀과 수수를 담는 제기 ‘보’ ▲코끼리 모양의 술항아리 ‘상준’ 등이 전시됐다.

제기들 가운데 상준이 가장 눈에 띄었다. 부처님 귀처럼 아래로 길게 늘어진 귀와 고슴도치 가시마냥 뾰족 솟은 상아를 가진 코끼리의 등에 화장품 용기를 얹은 형태였다. 우스꽝스럽게 생긴 술항아리를 쥐고 제사에 올릴 술을 따라야 했던 조상님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웃음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당시 치러진 제례를 상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시물이 하나 더 있다. 사직 제관의 복식이 바로 그것. 제례에 참여하는 제관들은 검은색 계열의 제복을 입었고, 머리엔 제관을 썼다.

속에는 중단을, 겹옷으로는 흑색의(衣)를 입었으며 그 위에 상, 대대, 수, 폐슬, 패옥, 품대, 방심곡령을 착용했다. 사극에 종종 제복이 나와서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제관에 부착된 세로선의 개수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알게 됐다. 이 세로선(양)의 수를 통해 신분을 나타냈다고.

사직단 안향청 권역 복원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일제강점기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공원으로 격하한 국가 최고의 의례 시설을 되살려 사직단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과 관광 자원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리그1 전북, 2025시즌 유니폼 공개...메인 스폰서 ‘NEXO’로
▲불혹까지 단 하루 남은 호날두, ACLE서 멀티골 기록
/사진 뉴스시스

▲손흥민의 토트넘, 마티스 텔·단소 영입으로 공수 강화
▲연기된 축구협회장 선거 26일 진행...정몽규 등 후보자 3인 자격 유지

▲김하성 “WS 우승 위해 최선 다하겠다”...탤파베이 계약 공식 발표
▲‘영탁 음원 새재기’ 前기획사 대표, 징역형... “질서 왜곡”